

Prepared for Battle 17/5/15  
(Daniel 10:1 - 11:1; Ephesians 6:10-20)

When I was in my teenage years, the minister of the church my family attended in Sydney was an eloquent preacher. One of the features of his sermons was the long (sometimes more than 5 minutes, even as long as 10 on occasions) introductions. Daniel chapter 10 is a bit like that. It brings us to the last major section of the book of Daniel. Chapters 10-12 are all one vision - with a long introduction. It takes all of chapter 10 simply to get to the vision itself. And the chapter is a formidable introduction- it nearly sucked the life out of Daniel himself. But what does a long introduction like this aim to teach us? It may have been terrifying for Daniel and yet it should prove instructive for us.

I think that the chapter teaches us 4 things:

1. Faithfulness may be more difficult than we suppose

Verse 1 is the heading for all of chapters 10-12; "In the third year of Cyrus King of Persia, a revelation was given to Daniel (who was called Belteshazzar). Its message was true and it concerned a great war. The understanding of the message came to him in a vision." The third year after Cyrus' conquest of Babylon was 536 B.C. The content of the vision given to Daniel was a great war. The word translated "great war", carries the idea of hard service or great suffering. So, although the vision will major on warfare, such warfare will also include severe suffering for the people of God (e.g. 11:29-35).

It is a bit foreboding and confronting that this reminder should come at the very beginning, in the heading to the whole vision. We who live in the western world under governments that, for all their godlessness, at least do not engage in persecution of Christians can forget that we are in an abnormal situation.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o are daily reviled, rejected, imprisoned, beaten and killed for Christ's sake - whether in North Korea, or Syria and Iraq or Pakistan or many countries in Africa, where they are hated and hunted - are experiencing what is far more normal for Christ's disciples, his servants. We need to be reminded constantly that both faith in Christ and suffering for Christ are equally gifts of grace, as Paul teaches us: "For it has been granted to you on behalf of Christ not only to believe on him, but also to suffer for him" (Philippians 1:29).

Suffering is the identification mark of God's people. And Daniel's opening heading underscores that. He is saying that the future history of the people of God will involve great

제가 십대였을 때, 시드니에서 저희 가족이 출석했던 교회의 목사님은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가였습니다. 그분 설교의 특징 중 하나는 긴 서두였습니다 (때로 5 분이상, 간혹 10 분 이상일 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0 장이 그러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가장 큰 부분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10-12 장은 모두 긴 서두가 들어있는 하나의 환상에 관한 것인데 10 장 전체는 환상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서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이로운 서두입니다-그것은 다니엘의 삶을 거의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긴 서두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다니엘을 두렵게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그 챕터는 우리에게 4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신실함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1 절은 10-12 장의 서두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 삼년에 한 일이 벨트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치한 삼 년 후는 서기 536 년 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진 환상의 내용은 거대한 전쟁입니다. 거대한 전쟁으로 번역된 그 단어는 어려운 생활 또는 거대한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은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고난을 지게 합니다.

이 조언이 서두 맨 처음 부분에 왔다는 것은 꽤 경고적이면서 충격적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는 정부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곳이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매일 모욕을 당하고, 거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맞고, 죽임을 당합니다-북한, 시리아, 이라크, 파키스탄 그 외 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미움을 받고 추적당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종들로서 훨씬 일반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동일한 은혜의 은사임을 계속 일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1:29 절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서두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의 미래의 역사는 거대한 고난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고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요한복음 16:33).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쓰러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서있게 하기 위해, 낙담케 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로 준비케 하기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2.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다니엘은 3 주동안 통곡했습니까? 왜 그는 그의 식습관을 그렇게 심각하게 제한했습니까? 왜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까? 12 절에서 이 기간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기도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다니엘은 그런 열렬한 탄원을

Prepared for Battle 17/5/15  
(Daniel 10:1 - 11:1; Ephesians 6:10-20)

suffering. It is simply what is to be expected.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Jesus warned his disciples on the night before he died (John 16:33). But we are not told this to break us down but to shore us up, not to make us depressed but only to prepare us.

2. Prayer is more crucial than we suppose  
 Why did Daniel mourn for 3 weeks? Why did he restrict his diet so severely? Why no use of lotions for that period? Clearly, as verse 12 makes clear, this period was a time of extended and focused prayer. But what was behind the prayer? Why was Daniel driven to such intense petitioning? Perhaps there are a number of possible reasons.

First, Daniel was seeking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future awaiting his people. The final verse of chapter 8 clearly indicates that Daniel had less than full comprehension of what the vision in chapter 8 was all about. In addition, he may still have been grappling with the revelation of verses 24-27 of chapter 9. Clearly some such concern motivated him, because in verse 12 of chapter 10 the heavenly messenger speaks to Daniel about "the first day that you set your mind to gain understanding". And in v. 14 the heavenly messenger indicates that he has come "to explain to you what will happen to your people in the future".

Second, Daniel may have been disturbed by reports filtering back from Judah of the ongoing, unrelenting opposition the exiles who had returned from Babylon were meeting. By this time the exiles would have been back in Judah a few years and, if Daniel was still serving in some governmental capacity in the new Persian empire, as seems the case, he would have had access to reports on provincial affairs. Hearing of his people's distress in Judah drove Daniel to prayer.

Of what use was Daniel's prayer? The fact that the angel says to Daniel, "your words were heard, and I have come in response to them" (v. 12) implies that this visitation would not have happened apart from Daniel's specific prayer. Then the heavenly messenger's continued explanation in v. 13 implies that Daniel's prayer sustained a behind-the-scene triumph over the malicious and evil plans of the invisible powers in charge of Persia. One commentator has put it this way: "As we shall see, Daniel's prayers succeeded in drawing angels from heaven to

합니까?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그의 백성들이(이스라엘 백성) 미래에 어찌될지 더 알고자 했습니다. 8 장의 마지막 절은 다니엘이 8 장에 나와 있는 환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는 여전히 9 장 24-27 절의 계시를 붙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어떤 근심이 그에게 동기를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0 장 12 절에 하늘의 메신저가 다니엘에게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 절에 하늘의 메신저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어쩌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을 향한 계속적이고 무자비한 반대 세력에 대한 유대에서 온 소식들에 심난해 졌을지 모릅니다. 이때쯤엔 포로들은 유대로 돌아간 지 몇 년 되었을 테고, 보시다시피 다니엘이 여전히 새로운 바사 왕국에서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다면, 그는 지방의(유대 지방의) 문제나 뉴스들을 전해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로부터 그의 백성들의 고난의 소리가 다니엘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유용했습니까?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는 사실은 천사의 방문이 다니엘의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함축합니다.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늘의 메신저는 13 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바사를 이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계획 너머 승리의 장면들을 이뤄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주석가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들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천사들을 내려오게 했습니다 ...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사이의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다니엘은 사탄의 힘을 격파하고자 영적인 하늘의 군사로서 천사들을 동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쓰시나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의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기도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나요? 왜 이스라엘의 어려움들을 그분의 힘과 권위로 바로 해결하려 하지 않으시나요? 답은 하나님은 때때로 그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2 장을 기억하십시오. 모압의 왕 발락은 점쟁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그들을 저주하도록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그러한 위협에 처했음을 아는 암시는 없습니다. 이스라엘백성에 의한 기도나 리더들이 그 문제를 주시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하고자 했던 모든 저주를 방해하기 위해서 당나귀와 환상과 협박을 사용하며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자주 하나님은 시간이 소모되는 긴 방법을 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분의 백성들 또는 종들로 그들 자신의 필요를 감지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필요들을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에 더 감사하게 하고 가치 있게 여기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다니엘 10 장에서 하나님은 이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의 종으로 그의

Prepared for Battle 17/5/15  
(Daniel 10:1 - 11:1; Ephesians 6:10-20)

earth...In the mighty battle then being fought between the Kingdom of God and the kingdom of this world. Daniel succeeded in mobilizing the angels as a spiritual air force against the satanic powers in the air”.

But why does God do it this way? Why does God bring his help through the cumbersome and agonizing process of Daniel's prayers? Why doesn't he directly apply his power and authority to meet Israel's troubles? The answer is that sometimes he does do that. Remember Numbers 22. There Balak, Moab's king, paid the diviner (witchdoctor!), Balaam, to place a curse on Israel so that Balak could defeat them in battle. There is no indication that Israel at the time was even aware of her danger. There was no prayer offered up by Israel or its leaders over the matter. God simply went to work on his own, using a donkey, a vision and a threat to thwart any curse Balaam would have loved to declare. So often, however, God seems to take the long, time-consuming way. Why? - perhaps to allow his people or his servant to sense and understand their own need - and so be more thankful for and all the more treasure God's fulfilment of that need. But it's all so inefficient, isn't it? God seems to choose this inefficient way in Daniel 10. He moves his servant to pray for his people, then in reponse to the sweat and struggle of prayer he begins to bring help to his people. "I have come in response to your words", the angel says. Daniel prayed, and angels went to war.

3. Truth is more devastating than we suppose

Who or what was this figure, this "man dressed in linen with a belt of gold around his waist", described in verse 6, who Daniel saw in his vision by the Tigris river? Some commentators think he is Gabriel, who was the angelic messenger and interpreter in chapters 8 and 9. Others think that this is Christophany - a pre-incarnation appearance of Christ - especially drawing attention to the parallels between Daniel's vision and John's vision of the risen Jesus in Revelation 1:13-16. But this seems unlikely in that in verse 13 this figure acknowledges that he received help in his conflict from Michael. The all-powerful Christ would not need such help. And so, vv. 5-6 seem to depict an unnamed angelic messenger, who is endowed with the splendour, the power and the dread of the God he serves.

백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달콤하지만 힘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분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 도우십니다. "내가 네 팔로 말미암아 왔느니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했고 천사는 그 전쟁에 왔습니다.

3.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압도적입니다

티그리가 강가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다"고 6 절에 묘사된 이것은 무엇(누구) 였습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그가 8, 9 장에 언급된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을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오시기 전의 그리스도의 출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계시록 1:13-16 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환상과 다니엘의 환상 사이에 유사점에 주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3 절에 그가 싸움에 미카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에서 비슷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5-6 절에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경외를 타고 난 한 무명천사장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은 압도당합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8 절) 우린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 주 동안 굉장히 제한적인 식단과 집중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80 대 중반의 한 남자는 강인한 용사 같은 천사의 등장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방문자를 향한 무례함은 없습니다.

현대 크리스찬 문화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의 방문자가 트라우마의 원인 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남자가 미국의 목사이자 선생인 존 맥아더와 얘기 하기 위해 컨퍼런스가 끝나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봤는지, 그의 환상을 꿰는지, 예수님이 자주 그에게 말씀 하신다는 것을 맥아더에게 말했습니다. 한 예로 그는 "주님은 제가 면도하는 동안에 저에게 말씀하러 오십니까" 존 맥아더의 대답은 "하나 묻고 싶은 건 그럴 때 당신은 면도를 멈추나요?" 그것은 "그것이 당신의 삶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맥아더는 그 남자의 경솔한 언행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과 같지 않음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주님의 천사중이 어떤 메시지나 계시를 주려고 누군가에게 올 때 그 경험은 대부분의 경우 무서운 근심을 가져옵니다. 다니엘서 10 장의 큰 부분은 다니엘이 다시 힘을 내어 서있을 수 있기까지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기술 합니다. 추측하건대 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8-10 절과 15-17 절에 묘사된 그의 상태를 읽어보면 힘이 없고, 잠자고, 떨고, 말하지도 숨쉬지도 못하는 이 남자가 천사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다시 일어 설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18-19 절은 우리에게 다니엘은 계시의 고통스러운 체험을 마주함으로 충분히 힘을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고되고

Prepared for Battle 17/5/15  
(Daniel 10:1 - 11:1; Ephesians 6:10-20)

Daniel is devastated: "I had no strength left, my face turned deathly pale and I was helpless (v. 8b). We shouldn't be surprised! Just think about it. Here is a man, probably in his mid-eighties, having come through three weeks of a very restricted diet and intense focus on prayer and he is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flattened by the appearance of the invincible angelic warrior. There is nothing casual about a heavenly visitor.

Some people in our contemporary Christian culture seem to assume that a visitor from heaven is no cause for trauma. A man once waited to speak with John MacArthur, the American pastor and teacher, after a conference. He told MacArthur how he often saw the Lord, had visions of him, and that Jesus talked with him often. As an example, the man said: "He'll come and speak to me while I'm shaving." John MacArthur's response was: "I have just one question. Do you stop shaving?" As if to say: "Does this tend to interrupt your routine at all?" As far as MacArthur was concerned the man's flippancy was so unlike what we read in the Bible. Even when one of the Lord's angelic servants comes to a person to bring some message or revelation, that experience brings devastating anguish in most cases. A large part of Daniel 10 describes the agonizing process of getting Daniel able to stand on his feet again, presumably so that he can properly receive God's revelation. As his condition is described in v. 8-10 and 15-17 one wonders if this helpless, sleeping, shaking, speechless, breathless man will ever be in shape to receive the angel's revelation. Verses 18-19 finally assure us that Daniel had been sufficiently strengthened to face more of the revelation ordeal.

The painful detail we are given of the arduous and gut-wrenching process of strengthening Daniel to receive this vision emphasizes for us that receiving the truth takes a frightful toll on a man or woman. Perhaps it's something like what happened to John Bradley who was one of the men in the famous photo of raising the American flag on the island of Iwo Jima in World War II.

장이 꼬이는 과정의 고통스러운 디테일들은 진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대가를 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것은 세계 2차 대전에 이르지마섭에 미국 국기를 꽂는 유명한 사진에 나오는 군인중 한명인 존 브레들리에게 일어난 것과 비슷합니다.

그는 의료부대에 소속되었었고 피가 난무하고 소름 끼치는 전쟁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관심한 어조로 아내가 될 엘리자베스와 첫 데이트에서 그 전쟁에 대해 7-8분 정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후에 그들의 아들에게 그들이 1946년에 결혼한 후에 4년 동안 존이 잘 때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과 같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그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들에게 감사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그의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그 종들에게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상이나 테이블, 흔들의자, 교회 의자에 편히 앉아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육체적, 감정적으로 얼마나 지쳤는지 또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두셨을 때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마음이 상했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와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 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벨아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칠 일을 지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이 지불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더 가치있고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길 원할 것입니다.

4.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천사의 메신저는 13절에 왜 그가 다니엘에게 오는 것이

Prepared for Battle 17/5/15  
(Daniel 10:1 - 11:1; Ephesians 6:10-20)

He was in the medical corps and saw more than his share of the gore and horror of war. He almost never spoke about it at all. He spoke of it for 7 or 8 minutes, in a very disinterested fashion, on his first date with his wife-to-be Elizabeth. But, Elizabeth later told their son that after they were married in 1946 John wept at night, in his sleep, for 4 years. The agony had left its mark - which is precisely what we see



with Daniel here.

What should our response be? Surely one of gratitude - gratitude to God and to his servants through whom his word came to us. It's true, isn't it, that we seldom if ever think of the horror and pain the Lord's servants endured in order to be the instruments through whom his word is passed on to us in the Bible? We sit comfortably at our desks or tables, in our armchairs or pews, read the prophets, and scarcely think of how Daniel was physically and emotionally wiped out or Ezekiel was plunged into bitterness and anger of spirit as the Spirit of God lifted him up and transported him to the exiles in Babylon: "The Spirit then lifted me up and took me away, and I went in bitterness and in the anger of my spirit, with the strong hand of the Lord on me. I came to the exiles who lived at Tel Abib near the Kebar River. And there, where they were living, I sat among them for seven days - deeply distressed." (Ezekiel 3:14-15). In short, we fail to appreciate how much the word of God cost them. If we did, surely we would more highly prize and more eagerly embrace what we have received at their hands.

4. History is more complicated than we suppose

The angelic messenger explains in v. 13 why he was delayed in reaching Daniel. "The prince of the Persian Kingdom" must be an angelic power like the angelic messenger who came to Daniel and like Michael, but an evil angelic power since

늦어졌는지 설명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 다니엘에게 왔던 메신저와 미카엘처럼 천사의 힘이 있었지만 그것은 악한 천사의 힘이기에 그는 그들을 반대합니다. 이 군주는 바사를 책임지고 잠재적으로 통치하는 악한 영처럼 보입니다. 강하고 악한 영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기 위해 바사를 통해서 일하도록 임명된 것입니다.

천사의 메신저는 그러나 20-21 절에 그가 다니엘을 떠나면 나타날 미래의 전투를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바사의 군주와 싸우기 위해 돌아와야만 했고 그것이 끝난 후엔 헬라의 군주가 올 것입니다. 전쟁은 계속됩니다. 다니엘의 메신저가 받았던 단 하나의 조력자는 당신의 군주라고 언급된 미카엘 뿐이었고, 추측하건대 그것은 그가 책임진 영역은 이스라엘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악한 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고 혼란에 빠트리기 위해서 이 세계의 정부와 나라들을 조절하고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적 전쟁은 보여지는 것 저 뒤에서 계속 됩니다. 어느 주석가는 "어둠의 세력이 바사 왕의 궁전을 포위한다.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한 나라의 정부 관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차지합니다." 또 다른 이는 그것을 가장 똑똑한 외교관보다 훨씬 교활한 사단의 조력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각자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반감을 일으킬 목적으로 거짓, 유언비어, 다른 나쁜 것들을 통해서 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도록 임명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니엘의 메신저와 미카엘 그리고 겐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붙잡히면서 언급하셨던 군대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마태 26:53)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나 약하고 깨지기 쉬운 인간들이 우리가 담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이 했던 것,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약하고 흔들리는 인간인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보이지 않는 결과이긴 하지만 거대한 방법으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영적 전쟁을 위해서 철저히 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기를 권하며 끝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6:18). 압도적인 상황들, 견딜 수 없는 고난들과 절망적인 어려움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신실한 기도나 우리를 위해 싸우는 천사들의 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중대하고 결정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혼자서 우리를 위해 서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최악의 대결을 했고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그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로 확신하게 합니다(로마서 8:38-39). 바로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높임을 받고 계시며 더 이상

Prepared for Battle 17/5/15  
(Daniel 10:1 - 11:1; Ephesians 6:10-20)

he opposed them. This prince then seems to be a demonic power that has Persia as his area of responsibility and potential control - a powerful evil spirit assigned to work through Persia to bring harm to God's people.

The angelic messenger, however, indicates in vv. 20-21 that he faces further conflict once he leaves Daniel. He must return to fight with the prince of Persia and, when he finishes with that combat, the prince of Greece is coming. War goes on - continually. The only assistance Daniel's messenger receives comes from Michael, who is referred to as "your prince", presumably meaning that his area of responsibility was Israel. What are we to make of all this? It appears that unseen evil powers influence and control the kingdoms and governments of this world in order to inflict harm and chaos on the people of God. There is a spiritual battle going on behind the scenes. One commentator says, "Dark powers encompass the king's palace in Persia. What a dreadful thought...the government offices of a nation occupied by the forces of anti-God!" Another speaks of Satan's assistants who are "far more cunning than even the most clever human diplomats" and each is assigned to be an evil influence on the people of a country "through lies, propaganda, and other means, with the overall goal of stirring up hatred of the church of the Lord." We would despair if we did not know of Daniel's messenger and Michael and the legions of which Jesus spoke when arrested in the Garden of Gethsemane (Matthew 26:53).

Is there any part that we weak and frail human being - saved by God's grace - can play in all of this? We can do what Daniel did, can't we, and pray? When we pray, we who are merely weak, trembling human beings engage in the cosmic conflict in a way that has vast, though often unseen repercussions. That is why, when Paul urged the Ephesian Christians to be properly dressed for spiritual conflict in the whole armour of God, he ended by urging them to pray always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Ephesians 6:18). In the face of overwhelming situations, unbearable trials and frustrating difficulties, what can we do? We can pray!

Ultimately though, our victory doesn't rest on our faithfulness to pray, or even on the power of the angels who are fighting for us. Jesus Christ is the one who has himself won the victory for us. He took his stand all alone wearing God's armour in the crucial, the decisive battle for our

사단과의 싸움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귀하고 높이 여김을 받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삶에서 어렵고 좌절스러운 충돌 가운데서도 기쁨과 찬양의 위대한 근거입니다. 그 결정적인 싸움은 이미 끝났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싸움의(아마도 끔찍한 싸움) 끝은 천국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쉼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빨리 올 것이고 마침내 영광의 마지막 왕, 우리의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Prepared for Battle 17/5/15  
(Daniel 10:1 - 11:1; Ephesians 6:10-20)

souls. At the cross, Satan did his worst against him and was defeated. Since Jesus won that victory on the cross, no one and nothing can stand against him. And so Paul is able to assure us that neither life nor death,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and powers, nor anything in all creation can separate us from that victory in Christ (Romans 8:38-39). Even now, Jesus is exalted to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is no longer engaged in hand-to-hand conflict with the devil. He is seated at God's right hand, at rest. It is in him that we are "highly esteemed", precious in God's sight, and therefore assured of ultimate victory.

Surely this is great cause for rejoicing and praise, even during the difficult and frustrating conflicts of life! The decisive battle is already over and God has won the victory. And so, at the end of our earthly conflict, however fierce that may be, our glorious rest in heaven is firmly assured. The day is fast coming when at last the King of glory, our great God and Saviour, Jesus Christ, will come to claim his kingdom. Come, Lord Jesus, come!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